

<http://dx.doi.org/10.17703/JCCT.2023.9.4.363>

JCCT 2023-7-43

요양병원간호사의 돌봄효능감, 공감역량이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Nursing Hospital Nurses' Caring Efficacy and Empathy Competence on Human-Centered Care

강경혜*, 제남주**, 이민정***

Gyeong Hye Kang*, Nam Joo Je**, Min Jung Lee***

요약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돌봄효능감, 공감역량을 확인하고 그 요인을 분석하여 인간중심돌봄 행위의 향상과 그에 따른 이론적, 실천적 정보를 제공하며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G도 소재의 C지역 노인시설 요양병원 간호사 146명을 대상으로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144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IBM SPSS/25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간중심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위계적 다중회귀로 분석한 결과 돌봄효능감과, 공감역량이 높을수록 인간중심돌봄에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31.5%이었다. 본 연구결과 공감역량, 돌봄효능감순으로 인간중심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의 효율적인 간호수행을 위한 돌봄효능감, 공감역량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요양병원, 간호사, 돌봄효능감, 공감역량, 인간중심돌봄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confirm the care efficacy and empathy competency of nursing hospital nurses and analyze the factors to improve person-centered care behavior, provide theoretical and practical information accordingly, and prepare basic data. The study collected data from March 20, 2023 to April 20, 2023, targeting 146 nurses at a nursing hospital for the elderly in C region located in G province, and finally analyzed a total of 144 copies. Using IBM SPSS/25,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subject's person-centered care b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higher the caring efficacy and empathy capacity, the more the person-centered care was affected,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31.5%. As a result of this study, empathy competency and care efficacy were found to have an effect on person-centered care. It is thought that various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improve the care efficacy and empathy competency for the efficient nursing performance of person-centered care of nursing hospital nurses.

Key words : Nursing hospital, Nurses, Care efficacy, Empathy, Person-centered care

*정회원, 창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박사과정 (제1저자)

**정회원,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정회원, 창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박사과정 (참여저자)

접수일: 2023년 6월 19일, 수정완료일: 2023년 7월 5일

게재확정일: 2023년 7월 10일

Received: June 19, 2023 / Revised: July 5, 2023

Accepted: July 10, 2023

**Corresponding Author: jnj4757@cs.ac.kr

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m University, Korea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201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5.7%를 차지하였다[1]. 고령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2060년에는 43.9%으로 고령화율이 세계 최고일 것으로 전망된다[1].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2],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도 증가하면서 노인 돌봄과 부양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3].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 돌봄이 국가적인 책임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2,4]. 노인 환자의 요양병원 이용률도 높아져 2021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 5,919개소의 요양시설이 있으며 요양공동생활가정은 1,85개(31.8%), 노인요양시설 4,043개(68.2%)가 운영되고 있다[5].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최근 10년 사이 요양병원의 수는 690개에서 1,445개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수는 18.6만명에서 45.9만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6].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은 대부분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의 행위에 의존도가 높은 만성 노인 환자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제공하는 행위가 간호서비스 질의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7-9].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환자의 곁에서 간접, 직접 간호를 제공하며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0].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할 경우 의료인에 의한 일방적인 돌봄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는데[11],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역량 중요성 인식에 비해 간호역량 수준이 낮게 나타나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역량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2].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들의 간호요구도는 높은 반면, 역량을 갖춘 적절한 간호 인력의 확보는 어려워 의료서비스 질 저하의 우려가 있다[13].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과 간호서비스 질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간호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인간중심돌봄이 가장 큰 영향변수[8]이므로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인간중심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다양한 요구 충족과 유동적인 중재 제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13]. 그러므로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요양병원 간호사를 중심으로 인간중심돌봄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중심돌봄이란 환자의 가치를 존중하고, 의사소통하며, 의사결정에 환자를 참여시켜 자율성을 강화하고, 개인의 요구에 따라 개별화되는 돌봄 방식이다[14]. 이러한 인간중심돌봄이라는 돌봄 방식을 적용한 요양시설에서는 노인들이 느끼는 지루함과 무력감,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만족도는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13,15,16]. 노인의 개별적 요구에 중점을 두고 총체적인 돌봄을 지향하는 것이기에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요양병원 운영 환경에서의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 실천을 적용해야한다[17].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인간중심돌봄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에는 공감역량이 있다. 공감역량이 인간중심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18,19]. 요양병원간호사는 인간중심돌봄 간호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므로 요양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공감역량이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공감역량은 타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능력인공감에 간호사의 지식, 기술, 태도로 구성된 간호역량을 포함한 개념이다[20]. 선행연구에서 공감역량은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이며[21], 공감역량이 높을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며[22,23], 공감역량이 좋을수록 돌봄 수행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

공감역량과 돌봄효능감 관계성을 살펴보면 공감역량이 높은 간호사는 타인의 통증을 자신의 일처럼 함께 아파하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 환자의 통증관리 수행도가 높아진다고 보고되었다[24]. 요양병원 간호사의 돌봄효능감 증진과 공감을 통한 환자 중심의 개별화된 돌봄이 적용될 수 있는 공감역량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인간중심돌봄에 관한 선행연구의 대상자는 요양병원간호사[7,25,26], 요양보호사[27] 등 주로 노인요양기관 간호제공자를 대상으로 인간중심돌봄 수행정

도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요양병원간호사의 돌봄효능감, 공감역량이 인간중심돌봄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찾기 어렵다. 노인간호 현장의 간호근무환경을 알아보고 인간중심돌봄 실천과의 관련성과 영향 정도를 확인해보는 것은 중요하며 요양병원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 실천을 위해 요양병원 간호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감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충분한 간호 인력 및 물질적 지원과 요양병원 간호인력 수가 개선 등의 조직적,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돌봄효능감, 공감역량의 수준을 파악하고 돌봄효능감, 공감역량과 인간중심돌봄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인간중심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인간중심돌봄 행위를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이론적, 실천적 정보를 제공하고 인간중심돌봄 실천을 높일 수 있는 중재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돌봄효능감, 공감역량이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도 C 지역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임의 표출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Kwon [25]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에서 효과크기(effect size).15(중간), 유의수준(α).05, 검정력(1- β).80, 변수 11개로 산출한 결과, 적정표본 크기의 최소 인원을 123명으로 산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탈락율 20%를 산정하여 148명을 초기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이 중 응답이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미흡한 4부를 제외한 144명의 자료를 최종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기입형 설문지로 문항은 일반적 특성 9문항, 돌봄효능감 30문항, 공감역

량 17문항, 인간중심돌봄 13문항으로 총 6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연구대상자의 제 특성

대상자의 제 특성은 선행연구[25]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출생년도, 성별, 결혼상태, 종교, 최종학력, 임상경력, 요양병원 근무경력, 직위, 인간중심돌봄 교육경험의 총 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 돌봄효능감

본 연구에서 돌봄효능감의 척도는 Coates [28]가 개발한 돌봄효능감 척도 (Caring Efficacy Scale: CES)를 Watson의 돌봄이론과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토대로 하여 Jeong 과 Kim [29], 대상자와 환자와의 돌봄 관계, 돌봄 중심의 태도와 행동에 관련한 자신의 능력에 관한 확신을 측정하기 위해 번안한 도구이다. 본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6점 Likert 척도이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부터 '매우 동의한다' 6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15문항은 역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당시 Coates [28]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고, Jeong 과 Kim [2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3$ 으로 나타났다.

3) 공감역량

본 연구에서 공감역량의 척도는 Lee와 Seo [30]가 개발한 간호사 공감역량 측정도구(Compassion Competence Scale: CC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하위영역으로 소통력 8문항과 민감성 5문항, 통찰력 4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각 문항 평균을 산출하며 높은 점수일수록 공감역량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Lee와 Seo [3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8$ 이 도출되었다.

4) 인간중심돌봄

본 연구에서 인간중심돌봄 도구는 Edvardsson 등 [31]이 개발한 Person-centered Care Assessment Tool (P-CAT)을 Tak 등[32]이 한국어로 번안한 후 신

회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인간중심돌봄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13문항이며 2개의 하위영역이며 개별화된 돌봄 7문항, 조직적 및 환경적 지지 문항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중심돌봄 수행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Edvardsson 등[3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4$, Tak 등[3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7$ 이었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권익보호와 자율성을 위하여 연구의 목적, 진행과정, 절차, 익명성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진행되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고 설문지 작성에는 15-20분이 소요됨을 설명하였다. 질문이 있으면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였고, 연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연구 종료 후 밀봉하여 3년간 보관한 후 파쇄 할 것이며,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수집된 자료는 숫자화 하여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비밀과 익명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5.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은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이며, 각 기관의 간호부장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 수집에 대한 승인과 협조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대상자를 대할 때 KF94 방역마스크를 착용하고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보장 및 진행절차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권익보호와 자율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완료된 설문지는 봉투에 회수하여 간호부에 전달되었으며 본 연구자가 회수하였다.

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25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결과에 대한 유의수준은 .05로 측정하였다.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백분율), 각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돌봄, 돌봄효능감, 공감역량은 t-test, one-way ANOVA로 측정하였다.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조사대상자 144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평균 43.90±9.48세이었으며, '39세 이하' 50명(34.7%), '40~49세' 53명(36.8%), '50세 이상' 41명(28.5%)이었다. 성별은 '여자' 137명(95.1%), '남자' 7명(4.9%)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 100명(69.4%), '미혼 및 기타' 44명(30.6%) 이었다. 종교유무는 '없음' 79명(54.9%), '있음' 65명(45.1%)이었다. 학력은 '3년제 대졸' 78명(54.2%), '4년제 대졸 이상' 66명(45.8%)이었다. 총임상경력 은 평균13.07±7.76년 이었으며, '10년 미만' 43명(29.9%), '10~15년 미만' 43명(29.9%), '15~20년 미만' 26명(18.1%), '20년 이상' 32명(22.1%) 이었다. 영양병원경력은 평균 6.00±4.36년이었으며, '3년 미만' 40명(27.8%), '3~5년 미만' 30명(20.8%), '5~10년 미만' 39명(27.1%), '10년 이상' 35명(24.3%)이었다. 현재직위는 '일반간호사' 96명(66.7%), '책임간호사 이상' 48명(33.3%) 이었다. 인간중심돌봄 교육경험은 '있음' 71명(49.3%), '없음' 73명(50.7%)이었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44)

특성	구분	n(%)	M±SD
연령	< 39	50(34.7)	43.90±9.48
	≥40~ < 49	53(36.8)	
	≥50	41(28.5)	
성별	남자	7(4.9)	
	여자	137(95.1)	
결혼유무	기혼	100(69.4)	
	미혼, 기타	44(30.6)	
종교유무	있음	79(54.9)	
	없음	65(45.1)	

특성	구분	n(%)	M±SD
학력	3년제 대졸	78(54.2)	
	4년제 대졸 이상	66(45.8)	
충임상경력	< 10	43(29.9)	13.07±7.76
	≥10~ <15	43(29.9)	
	≥15~ <20	26(18.1)	
	≥20	32(22.1)	
요양병원근무경력	< 3	40(27.8)	6.00±4.36
	≥3~ <5	30(20.8)	
	≥5~ <10	39(27.1)	
	≥10	35(24.3)	
현재직위	간호사	96(66.7)	
	수간호사 이상	48(33.3)	
인간중심돌봄교육경험	있음	71(49.3)	
	없음	73(50.7)	

2. 조사대상자의 돌봄효능감, 공감역량, 인간중심돌봄

조사대상자의 돌봄효능감, 공감역량, 인간중심돌봄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설문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계수를 구하였다. 신뢰도 검증 결과 돌봄효능감 .93, 공감역량 .88, 인간중심돌봄 .77이었다[Table 2-1].

표 2-1. 돌봄효능감, 공감역량, 인간중심돌봄의 신뢰도
 Table 2-1. Caring efficacy, empathy, reliability of person-centered care (N=144)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돌봄효능감	1-30	30	.93
공감역량	소통력	1-8	.78
	민감성	9-12	.75
	통찰력	13-17	.76
	계	1-17	.88
인간중심돌봄	개별화된 돌봄	1-7	.78
	조직적 및 환경적 지지	8-13	.71
	계	1-13	.77

조사대상자의 돌봄효능감, 공감역량, 인간중심돌봄의 점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2-2와 같다. 돌봄효능감은 6점 척도 3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효능감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돌봄효능감 점수는 180점 만점에 132.16±17.22점이었으며, 평균평점은 6점 만점에 4.41±0.57점이었다.

공감역량은 5점 척도 17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공감역량 점수는 85점 만점에 64.69±6.38점 이었으며, 평균평점은 5점 만점에 3.81±0.38점 이었다. 공감역량 하위항목들의 점수는 소통력 3.81±0.40점, 민감성 3.95±0.44점, 통찰력 3.67±0.48점 이었다.

인간중심돌봄은 5점 척도 1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중심돌봄을 잘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중심돌봄 점수는 65점 만점에 44.50±5.99점 이었으며, 평균평점은 5점 만점에 3.42±0.46점이었다. 인간중심돌봄 하위항목들의 점수는 개별화된 돌봄 3.42±0.57점, 조직적 및 환경적지지 3.43±0.58점이었다. [Table 2-2].

3.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돌봄효능감, 공감역량, 인간중심돌봄의 차이

조사대상자 특성에 표 4와 같다.

돌봄효능감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연령(F=5.09, p=.007), 결혼상태(t=2.53, p=.013), 종교유무(t=-2.06, p=.041), 인간중심돌봄 교육경험(t=2.73, p=.007)이었다. 연령은 '50세 이상'이 '39세 이하' 보다 높았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미혼 및 기타' 보다 높았다. 종교유무는 '있음'이 '없음'보다 높았다. 인간중심돌봄 교육경험은 '있다'가 '없다' 보다 높았다.

공감역량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연령(F=4.16, p=.018), 결혼상태(t=2.77, p=.007), 종교유무(t=-2.58, p=.011), 인간중심돌봄 교육경험(t=2.56, p=.012) 이었다. 연령은 '50세 이상'이 '39세 이하' 보다 높았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미혼 및 기타' 보다 높았다. 종교유무는 '있음'이 '없음' 보다 높았다. 인간중심돌봄교육경험은 '있음'이 '없음' 보다 높았다.

인간중심돌봄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결혼상태(t=2.11, p=.037), 종교유무(t=-2.20, p=.030), 인간중심돌봄 교육경험(t=2.30, p=.023)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미혼 및 기타' 보다 높았다. 종교유무는 '있음'이 '없음'보다 높았다. 인간중심돌봄교육경험은 '있음'이 '없음' 보다 높았다[Table 3].

4. 돌봄효능감, 공감역량, 인간중심돌봄의 관계

돌봄효능감, 공감역량, 인간중심돌봄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표 2-2. 돌봄효능감, 공감역량, 인간중심돌봄의 점수

Table2-2. Scores of care efficacy, empathy, and person-centered care

(N=144)

		Range	Min	Max	Mean±SD	평균평점 (Mean±SD)	척도
돌봄효능감		30-180	96	176	132.16±17.22	4.41±0.57	1-6
공감 역량	소통력	8-40	22	40	30.50±3.20	3.81±0.40	
	민감성	4-20	10	20	15.82±1.76	3.95±0.44	
	통찰력	5-25	13	25	18.37±2.38	3.67±0.48	
계		17-85	48	81	64.69±6.38	3.81±0.38	1-5
인간중심 돌봄	개별화된 돌봄	7-35	10	32	23.94±3.99	3.42±0.57	1-5
	조직적 및 환경적 지지	6-30	13	30	20.56±3.46	3.43±0.58	
	계	13-65	30	62	44.50±5.99	3.42±0.46	

표 3.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돌봄효능감, 공감역량, 인간중심돌봄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in care efficacy, empathy, and person-centered car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N=144)

특성	구분	돌봄효능감			공감역량			인간중심돌봄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1.연령	39세 이하 ^a	4.22±.56	5.09	.007	3.68±.39	4.16	.018	3.38±.39	.57	.568
	40~49세 ^b	4.43±.56		c>a	3.86±.41		c>a	3.42±.51		
	50세 이상 ^c	4.60±.55			3.88±.27			3.48±.47		
2.성별	여자	4.40±.57	-.49	.624	3.80±.36	-.74	.487	3.42±.47	-.08	.936
	남자	4.51±.64			3.96±.57			3.43±.15		
3.결혼상태	기혼	4.48±.55	2.53	.013	3.87±.33	2.77	.007	3.48±.46	2.11	.037
	미혼 및 기타	4.23±.60			3.67±.43			3.30±.45		
4.종교유무	없다	4.32±.55	-2.06	.041	3.73±.40	-2.58	.011	3.35±.43	-2.20	.030
	있다	4.51±.59			3.89±.32			3.51±.48		
5.학력	3년제 대졸	4.45±.58	1.05	.298	3.78±.33	-.97	.326	3.42±.43	-.03	.978
	4년제 대졸 이상	4.35±.57			3.84±.42			3.42±.49		
6.총임상경력	10년 미만 ^a	4.43±.59	2.22	.089	3.81±.33	2.17	.094	3.50±.44	1.11	.345
	10~15년 미만 ^b	4.34±.53			3.79±.38			3.39±.44		
	15~20년 미만 ^c	4.23±.51			3.68±.36			3.30±.46		
	20년 이상 ^d	4.59±.63			3.93±.42			3.46±.51		
7.요양병원경 력	3년 미만 ^a	4.46±.58	.95	.418	3.80±.37	.22	.884	3.50±.44	1.69	.172
	3~5년 미만 ^b	4.40±.48			3.82±.35			3.52±.39		
	5~10년 미만 ^c	4.28±.57			3.77±.39			3.38±.50		
	10년 이상 ^d	4.48±.64			3.84±.40			3.31±.48		
8.현재직위	일반간호사	4.42±.57	.47	.641	3.80±.36	-.14	.890	3.44±.47	.44	.659
	책임간호사 이상	4.37±.58			3.81±.40			3.40±.44		
9.인간중심돌봄 교육경험	있다	4.53±.53	2.73	.007	3.88±.34	2.56	.012	3.51±.45	2.30	.023
	없다	4.28±.59			3.73±.40			3.34±.46		

표 4. 돌봄효능감, 공감역량, 인간중심돌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are efficacy, empathy, and person-centered care

(N=144)

	돌봄 효능감	공감역량				인간중심돌봄		
		소통력	민감성	통찰력	계	개별화된 돌봄	조직적 및 환경적 지지	계
돌봄효능감	1							
공감 역량	소통력	.587 (<.001)	1					
	민감성	.565 (<.001)	.602 (<.001)	1				
	통찰력	.591 (<.001)	.658 (<.001)	.589 (<.001)	1			
	계	.671 (<.001)	.913 (<.001)	.797 (<.001)	.865 (<.001)	1		
인간 중심 돌봄	개별화된 돌봄	.455 (<.001)	.561 (<.001)	.475 (<.001)	.441 (<.001)	.577 (<.001)	1	
	조직적 및 환경적 지지	.294 (<.001)	.281 (.001)	.251 (.002)	.110 (.190)	.251 (.002)	.288 (<.001)	1
	계	.474 (<.001)	.536 (<.001)	.462 (<.001)	.357 (<.001)	.529 (<.001)	.833 (<.001)	.770 (<.001)

표 5.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

Table 5. Impact system on person-centered care

(N=144)

	모형1					모형2				
	B	SE	β	t	p	B	SE	β	t	p
(상수)	3.06	.12		24.80	<.001	.90	.34		2.64	.009
결혼상태 (1=기혼, 0=미혼 등 기타)	.14	.08	.14	1.71	.090	.03	.07	.03	.40	.691
종교유무 (1=있음, 0=없음)	.13	.08	.14	1.73	.087	.06	.07	.06	.85	.396
인간중심돌봄교육경험 (1=있음, 0=없음)	.16	.07	.17	2.10	.037	.06	.07	.06	.86	.391
돌봄효능감						.16	.08	.20	2.09	.038
공감역량						.44	.12	.36	3.73	<.001
Adj-R ²	.063					.290				
R ²	.083					.315				
R ² 변화량	-					.232				
F(p)	4.21(.007)					12.67(<.001)				
F변화량(p)	-					23.35(<.001)				

인간중심돌봄은 돌봄효능감($r=.474$, $p<.001$), 공감역량($r=.529$, $p<.001$)과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하위항목들 간에도 서로 정적상관이 있었다. 돌봄효능감과 공감역량 간에도 높은 정적상관($r=.671$, $p<.001$)이 있었다 [Table 4].

5.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

돌봄효능감, 공감역량이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에는 조사대상자 특성 중 인간중심돌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혼상태(‘미혼 및 기타’ 기준), 종교유무(‘없음’ 기준), 인간중심교육경험(‘없음’ 기준) 3개를 투입하였으며, 모형 2에는 모형1에 추가로 돌봄효능감, 공감역량을 투입하였다.

분석전 오차항들간 자기상관이 있는지 Durbin Watson 검정으로 알아본 결과 1.903로 2근방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들간 자기상관은 없었다.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 분포로 가정할 수 있는지 표준화잔차를 구한 결과 모두 ± 3 이내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었다. 투입된 독립변수들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인자를 구한 결과 공차한계는 .529~.938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는 1.067~1.892로 10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모형 1에서 인간중심돌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인간중심교육경험($\beta=.17, p=.027$) 이었다. 인간중심교육경험은 '있음'이 '없음'에 비해 인간중심돌봄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모형 1의 총 설명력은 8.3% 이었다 ($F=4.21, p=.007, R^2=.083, \text{Adj-}R^2=.063$).

모형 2에 추가로 투입된 변인들 중 인간중심돌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돌봄효능감($\beta=.20, p=.038$), 공감역량($\beta=.36, p<.001$) 이었다. 즉, 돌봄효능감이 높을수록, 공감역량이 높을수록 인간중심돌봄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모형 2에 의해 추가로 설명된 비율은 23.2% 이었으며, 모형2의 총 설명력은 31.5% 이었다 ($F=12.67, p<.001, R^2=.315, \text{Adj-}R^2=.290$)[Table 5].

IV. 논 의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써 요양병원 간호사의 돌봄효능감, 공감역량의 수준을 파악하고 요인을 분석하여 인간중심돌봄 행위를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이론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돌봄효능감, 공감역량은 인간중심돌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간중심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돌봄효능감, 공감역량이 요양병원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기대해 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효능감의 차이는 연령, 결혼상태, 총 근무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돌봄효능감에

대한 대처능력과 효율적인 돌봄이 제공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 Kang [33], Lee [34]에서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다년간 임상현장에서의 돌봄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에 대한 전문적,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총 임상경력은 '5년 미만'의 간호사가 '10년 이상'의 간호사보다 인간중심돌봄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력이 짧을수록 인간중심돌봄이 더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 Kim과 Park [13]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경력이 적은 간호사들은 환자에게 직접간호를 제공하는 시간이 많아 환자의 특성이나 선호도를 인지하고 그에 맞는 개별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차가 높아질수록 직접간호 외의 업무가 추가되며, 책임감이나 심리적, 신체적 부담감으로 인해 인간중심돌봄의 수행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간호사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책임간호사 이상에서 인간중심돌봄이 더 높게 나타나는 Kang과 Lim [35] 등의 상반된 연구결과도 있어 요양병원 간호사의 경력과 학력, 직책에 따른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반복 연구를 통해 근거를 도출해야 하며, 또한 간호사의 경력별, 학력별, 직책별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돌봄효능감 평균평점은 6점 만점에 4.41 ± 0.57 점이었다. 이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찾기 어려워 직접적인 연구결과를 비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in과 Kim[36]의 연구결과 3.60점, Kang [33]의 연구에서 4.07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인 요양병원 간호사의 돌봄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간호대학생은 돌봄의 현장인 임상에서 실습을 통하여 돌봄의 기회가 다소 적은 반면,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경력이 늘어나면서 간호지식과 기술,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습득을 통해서 돌봄효능감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공감역량은 5점 척도 17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공감역량 평균평점은 5점 만점에 3.81 ± 0.38 점이었다. 공감역량 하위항목에서 소통력 3.81 ± 0.40 점, 민감성 3.95 ± 0.44 점, 통찰력 3.67 ± 0.48 점으로 민감성이 가장 높았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요양병원간호사를 조사한 선행연구 Kwon [25]의 결과에서 평균 3.82점과 유사한 점수를 보였으며, 공감역량의 하위영역에서도

민감성이 3.8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를 뒷받침하였다. 또한,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Lee와 Jeon [37]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민감성은 환자의 섬세한 관찰을 통하여 감정과 변화를 민감하게 알고 즉각적인 간호중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Lee [20], 요양병원 간호사의 공감역량 중 민감성은 일상생활에 대한 수행능력 저하, 인지저하에 따른 환자를 대하는데 민감하게 관찰해야 하는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통찰력은 3.67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요양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Kwon [25]와 유사한 결과이다. 통찰력은 환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상태나 요구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표준화된 간호가 아닌 개별화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20]. 전체적인 점수가 중간점 이상으로 높았지만, 그에 비해서 낮게 나타난 통찰력 향상을 위해서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함께 공감력 훈련과 돌봄효능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는 노력과 자원이 필요한 것이다.

인간중심돌봄 평균평점은 5점 만점에 3.42±0.46점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요양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Kwon [25]의 3.14점, Lee와 Jeong [38]의 3.3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경우 인간중심돌봄에 관한 내용들을 통한 환자 권리와 교육이 직원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노인인권과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 등이 제도화되어 있어[39], 환자의 인권과 개별화된 존중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간중심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에 대해 수행한 Kim 과 Song [40]연구에서는 2.97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의 인간중심돌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성기 치료 후 유지기에 해당하는 환자 중 지속적으로 의료진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요양병원과는 달리 대학병원 간호사는 노인에게 치료중심의 간호를 제공하나 노인의 개별적 요구도를 파악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인간중심돌봄을 기초로 간호를 제공하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인간중심돌봄의 하위영역에서 개별화된 돌봄은 3.42점(5점 만점)으로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과 Park [13]의 개별화된 돌봄 2.86점보다 높았지만, 장

기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Tak 등[32]의 연구에서 확인된 개별화된 돌봄 3.93점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요양병원 환자들은 장기요양시설 환자에 비해 비교적 중증도의 정도가 높아 치료와 돌봄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지만 장기요양시설에 비해 설비 등의 법적 요건이 단순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기준 역시 부족한 상황으로 환자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치료와 돌봄이 이루어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실시한 결과, 인간중심돌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인간중심교육경험이었다. 인간중심교육경험은 있음이 없음에 비해 인간중심돌봄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총 설명력은 8.3% 이었다. 인간중심돌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돌봄효능감($\beta=.20$, $p=.038$), 공감역량($\beta=.36$, $p<.001$)이었다. 즉, 돌봄효능감이 높을수록, 공감역량이 높을수록 인간중심돌봄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추가로 설명된 비율은 23.2% 이었으며, 총 설명력은 31.5% 이었다.

인간중심돌봄은 돌봄효능감, 공감역량과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하위항목들 간에도 서로 정적상관이 있었다. 돌봄효능감과 공감역량 간에도 높은 정적상관이 있었다.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공감력이 좋은 간호사는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형성에서 개별적,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인간중심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Tak 등[32]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공감역량은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이 되며, 의사나 다른 직종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긍정적인 간호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개인적 역량으로 고려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공감역량은 간호사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토론이나 역할극, 공감 교육 프로그램,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공감훈련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18,25].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공감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인간중심돌봄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돌봄효능감과 공감역량으로 고려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 중 남성의 비율이 극히 적고,

대상자의 총 임상경력에 비해 현 요양병원 근무경력이 짧은 특징을 보여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인간중심돌봄을 제공하는 간호사가 인지하는 인간중심돌봄을 측정하는 것으로, 추후 실제 임상에서 질적인 인간중심돌봄이 이루어지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간호사가 인지하는 인간중심돌봄을 동시에 측정하여 상호 일치성을 확인하는 후속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간호사의 공감역량 측정도구는 국내에서 개발된 도구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국외의 다른 연구결과와 직접적 비교가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관심과 함께 노인환자의 인권과 윤리, 개별성을 존중하는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며 연구 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돌봄효능감과 공감역량이 인간중심돌봄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돌봄의 요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간호사와 환자간의 상호관계 변화로 환자의 개별성, 자율성을 최대화하며 돌봄을 실행한 결과일 것이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 개인의 돌봄효능감과 공감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보완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식을 높이고 실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격려가 필요하며 병원 내에서의 개별화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제공이 필요하며 제도적인 환경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돌봄효능감과 공감역량, 인간중심돌봄의 정도를 확인하고 인간중심돌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돌봄효능감과 공감역량이 인간중심돌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31.5%이었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 간호사의 돌봄

효능감이 클수록 공감역량이 높을수록,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G도 C시의 요양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로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전국의 요양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대상자의 돌봄효능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돌봄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경로분석 및 구조방정식을 적용한 추가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실천을 위해 요양병원 간호사의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공감역량 증진을 위한 풍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제언한다.

넷째,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 증진을 위해 환자 중심의 개별화된 돌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간호 인력과 및 물질적 지원과 함께 요양병원 간호인력 수가 개선 등의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다섯째,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 측면과 더불어 간호를 받는 요양병원 수급자 입장에서의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요인도 함께 조사하여 간호사와 대상자의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차이를 확인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21). key demographic indicators. Seoul: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2] M. J. Kim and J. Y. Hwang, "A Study 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for Super-Aging Society", *Journal of Korean Industrial Technology Expansion*, Vol. 23, No. 10, pp. 395-405, 2019. DOI : 10.5762/KAI S.2019.20.10.395
- [3] Y. H. Park and K. W. Ko, "The Effect of Nursing Care Workers' Elderly Care Attitude on Service Quality through Job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Interaction Effect according to the Type of Long-term Care Institution", *Welfare studies for the elderly*, Vol. 76, No. 3, pp. 37-64, 2021. DOI : 10.21194/kjgsw.76.3.202109.37

- [4]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21). Statistical Yearbook of 2020 Long-Term Care Insurance. Seoul: Statistics Korea.
- [5] Y. G. Noh, National Medical Health Insurance Service, “The Role of Contract Doctors for Health Care for the Elderly in Nursing Homes for the Elderly”,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e05200m01.do?mode=view&articleNo=10828680> (2022.10.17.)
- [6]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udit Report–Yoang Hospital Operation and Benefit Management Status–”,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76801838962_20191220093039.pdf&rs=/upload/viewer/result/202306/ (2019.12)
- [7] J. H. Park and E. H. Park,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ervice Quality of Nursing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Vol. 13, No. 1, pp. 409–415, 2022. DOI : 10.15207/JKCS.2022.13.01.409
- [8] G. H. Sa and G. E. Lee, “Human-centered Care and Nursing Service Quality of Nursing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community nursing society*, Vol. 27, No. 4, pp. 309–318, 2016. DOI : 10.12799/jkachn.2016.27.4.309
- [9] S. H. Le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Nursing Hospital Service using Multiple-level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nursing*, Vol. 39, No. 3, pp. 409–421, 2009. DOI : 10.4040/jkan.2009.39.3.409
- [10] E. J. Kim, “Error Occurrence and Recovery Level of Nursing Students in Blood Transfusion Simulations for Patient Safety Competencies,” *journal of the basic nursing society*, Vol. 22, No. 2, pp. 180–189, 2015. DOI : 10.7739/jkafn.2015.22.2.180
- [11] Y. M. Lee, “Nursing Work Environment, Job Stress, and Human-centered Care of Nursing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20, No. 5, pp. 2635–2647, 2018. DOI : 10.37727/jkdas.2018.20.5.2635
- [12] E. J. Kim and M. O. Gu,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Nursing Competency of Nursing Hospital Nurses, Level of Nursing Competency, and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y and technology*, Vol. 16, No. 3, pp. 1989–2001, 2015. DOI : 10.5762/KAIS.2015.16.3.1989
- [13] S. B. Kim and Y. R. Park, “Factors Influencing Human-centered Care for the Elderly by Nursing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society of adult nursing*, Vol. 31, No. 6, pp. 618–627, 2019. DOI : 10.7475/kjan.2019.31.6.618
- [14] J. M. Lusk and K. A. Fater, “Concept Analysis of Patient-centered Care”, *Nursing Forum*, Vol. 48, No. 2, pp. 89–98, 2013. DOI : 10.1111/nuf.12019
- [15] J. Y. Yoon and J. Y. Lee, “A Study on Person-Centered Care in Elderly Care Facilities”, *Korean Aged Studies*, Vol. 32, No. 3, pp. 729–745. 2012. UCI : G704-000573.2012.32.3.011
- [16] S. Morgan and L. H. Yoder, “A Concept Analysis of Person-centered Care”, *Journal of Holistic Nursing*, Vol. 30, No. 1, pp. 6–15, 2011. DOI : 10.1177/0898010111412189.
- [17] H. R. Lee, N. Y. Yang, “Influence of Ethical Sensitivity and Person-environment Fit on Person-centered Care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Vol. 29, No. 2, pp. 175–182, 2022. DOI : 10.22705/jkashcn.2022.29.2.175
- [18] J. W. Park,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Caring Efficacy, and Social Suppor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Master’s thesis*, Gaya University, Gyeongnam, 2020.
- [19] G. Y. Kim and H. Y. Jang, “Influencing Factors of Human-Centered Care among Caregivers in Long-Term Care Facility”, *Journal of the Society of Geriatric Nursing*, Vol. 23, No. 1, pp. 13–23, 2021. DOI : 10.17079/jkgn.2021.23.1.13
- [20] Y. J. Lee, “Development of Nurses’ Empathy Competency Measurement Tool”, *Doctoral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2014.
- [21] S. h. Kim and H. O. Park, “The Effect of Self-resilience,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and Empathy of Nurses in General Hospitals 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6, No. 2, pp. 101–110, 2020. DOI : 10.5977/jkasne.2020.26.2.101
- [22] Y. M. Sun and K. H. Jung, “The Effect of Nurses’ Empathy on Interpersonal Skills, Job Satisfaction, and Happiness”, *Artistic Humanities Social Convergence Multimedia Paper*, Vol. 9, No. 9, pp. 489–500, 2019. DOI : 10.35873/ajmahs.2019.9.9.042
- [23] Y. M. Ahn, G. S. Jang, and H. Y. Park, “The Effects of Empathy Competency, Professional

- Self-concept, and Nursing Work Environment on Caring Behavior of Nurses in a Tertiary General Hospital”, *Journal of Health and Medical Industry*, Vol. 12, No. 4, pp. 17-30, 2018. DOI : 10.12811/kshsm.2018.12.4.017
- [24]M. H. Lee and M. H. Park, “Nursing Hospital Nurses’ Empathy, Attitude toward Dementia Patients’ Pain, and Pain Management Performance”, *Journal of the Society of Adult Nursing*, Vol. 28, No. 4, pp. 388-398, 2016. DOI : 10.7475/kjan.2016.28.4.388
- [25]M. J. Kwon, “Empathy Competency of Nurses in Nursing Hospitals,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Human-centered Care,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2022.
- [26]A. Y. Heo, “The Practice of Human-centered Care of Nurses in Elderly Care Hospitals and the Effect of Patient Safety Capabilities on Patient Safety Nursing Activitie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19.
- [27]D. S. Go, “Factors Influencing Human -centered Care of Nursing Care Workers in Higher Hospitals-focusing on Communication Skills,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Work Value”,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Chungnam, 2023.
- [28]C. J. Coates, “The Caring Efficacy Scale: Nurses’ Self-reports of Caring in Practice Settings. In C. E. Guzzetta (Ed.) *Essential Readings in Holistic Nursing*”, *Gatthersburge, Maryland: An Aspen Publication*, pp. 24-44, 1998.
- [29]J. O. Jeong and S. Kim, “The Effect of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Empathy Abilit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5, No. 3, pp. 344-356, 2019. DOI : 10.5977/jkasne.2019.25.3.344
- [30]Y. Y. Lee and M. G. Seo,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strument to Measure Nurses’ Compassion Competence”, *Applied Nursing Research*, Vol. 30, pp. 76-82, 2016. DOI : 10.1016/j.apnr.2015.09.007
- [31]D. Edvardsson, D. Fetherstonhaugh, R. Nay, and S. Gibson, “Development and initial testing of the Person-centered Care Assessment Tool (P-CAT)”,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Vol. 22, No. 1, pp. 101-108, 2010. DOI : 10.1017/S1041610209990688
- [32]Y. R. Tak, H. Y. Woo, S. Y. Yoo, and J. H. Kim, “Validation of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Human-centered Care Assessment Tool for Worker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nursing*, Vol. 45, No. 3, pp. 412-419. 2015. UCI : G704-000229.2015.45.3.001
- [33]M. K. Kang. “Ethical Sensitivity and Care Efficacy of Nurses: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Korea Transportation University, Seoul, 2022.
- [34]S. A.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Nurses’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ing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and Ethical Sensitivity”, *Master’s thesis*, Daegu. Catholic University, Daegu, 2019.
- [35]J. Y. Kang and Y. M. Li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 Environment and Person-Centered”, *Critical Care Nursing for Intensive Care Nursing*, Vol. 12, No. 2, pp. 73-84, 2019. DOI : 10.34250/jkccn.2019.12.2.73
- [36]S. H. Jin and E. H. Kim, “Influences of Nursing Professionalism, Caring Efficacy, and Ethical Sensitivity on Caring Behavior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 45, No. 4, pp. 394-401. DOI : <https://doi.org/10.21032/jhis.2020.45.4.394>
- [37]M. H. Lee and M. K. Jeon, “Effects of Compassion Competence, Role Conflict, and Job Demands on Nurses’ Geriatric Nursing Practice in Long-term Care Hospital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16, No. 3, pp. 39-50. DOI : <https://doi.org/10.12811/kshsm.2022.16.3.039>
- [38]M. K. Lee and H. M. Jeong, “Relationship between Dementia Nursing Knowledge, Dementia Attitude, and Human-centered Care of Nursing Hospital Nurse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Vol. 25, No. 2, pp. 128-137, 2019. DOI : 10.14370/jewnr.2019.25.2.128
- [39]G. J. Kwon, T. J. Park and S. Y. Lee, “ How is the Operation of the Elderly Care Hospital?”, *Korea Care Management Research*, Vol. 16, pp. 101-122, 2015. UCI : G704-SER000003121.2015..16.003
- [40]H. Y. Kim and M. S. Song, “The Effects of University Hospital Nurses’ Ability to Empathize with the Elderly,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Person-centered Care on Elderly Nursing Practice”, *Journal of Family Nursing*, Vol. 30, No. 1, pp. 59-68. 2023. DOI : 10.22705/jkashcn.2023.30.1.59